

2026.05.21.

# 오케이저축은행의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변경: BBB(S) → BBB(P)

정문영 금융1실 전문위원      김태현 금융1실 실장  
02.368.5643                      02.368.5319  
mychung@korearatings.com    thkim@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5월 21일자로 (주)오케이저축은행(이하 '동사')의 기업신용등급(ICR)을 BBB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변경한다.

[표 1] 등급전망 변경 내역

회사명	평가대상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주)오케이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CR)	BBB	안정적	<b>BBB</b>	<b>긍정적</b>

## 1. 등급전망 변경 사유(Key Rating Rationale)

금번 등급전망 변경은 1) 고위험 익스포저가 축소되었으며,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점, 2) 대규모 배당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3)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부실채권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1) 고위험 익스포저가 축소되었으며,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2026년 3월말 부동산PF 및 개인신용대출이 각각 7,246억원 및 4조 3,829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위험자산 익스포저가 빠른 속도로 축소(2024년말 각각 1조 4,115억원, 4조 8,645억원)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PF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비중도 2024년말 90.3%에서 2026년 3월말 37.0%로 하락하여, 양적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2025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총 1조 875억원의 부동산PF가 정리되었는데, 매각 및 일반담보대출 전환(합계 5,029억원)보다 리파이낸싱 및 회수(5,456억원)와 상각(390억원)으로 인한 익스포저 축소 비중이 큰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2026년 3월말 기준 부동산PF 관련 수익증권 보유액은 3,925억원이다.

[표 2] '본PF+브릿지론' 자산건전성(26.03)

(단위: 억원)

구분	잔액	자기자본대비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	총당금	고정이하비율	총당금/고정이하
본PF	2,632	13.5%	2,213	419	0	97	0.0%	N/A
브릿지론	4,614	23.6%	3,262	389	963	458	20.9%	47.6%
합계	7,246	37.0%	5,475	808	963	555	13.3%	57.6%

주) 기업일반대출로 분류된 브릿지론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동사 제시

## RATING ACTION - 키움캐피탈의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변경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회수 노력에 힘입어 2026년 3월말 총여신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도 2024년말(9.9%, 76.1%) 대비 개선된 8.6% 및 83.9%를 기록하였다.

### 2) 대규모 배당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정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말 레버리지배율 및 BIS자기자본비율이 각각 6.3배, 16.7%를 기록하는 등 자본적정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2026년 5월 중 4,000억원 규모의 모회사 배당이 예정되어 있어 자기자본 규모는 2024년말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여, 배당 이후에도 레버리지배율은 7~8배, BIS자기자본비율은 14%대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부실채권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과 2026년 1분기에 각각 1,688억원 및 760억원의 순이익, 1.3% 및 2.6%의 ROA를 시현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2025년과 2026년 1분기에 각각 2,264억원 및 95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가증권관련이익을 시현하는 등 투자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26년 5월 중 모회사에 3,000억원 상당의 JB·BNK·iM금융 지주 주식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그러나 대규모 유가증권관련이익에 힘입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을 지속하였고, 부실채권 순발생(=신규부실증가-여신회수-건전성 재분류)이 2025년 8,422억원 및 1,645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4년(1조 1,540억원)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실 채권 관련 손실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등급변동요인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에 힘입어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유가증권관련이익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이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회복 전망과 큰 폭의 위험 익스포저 감축을 감안하면, 부실채권 관련 손실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배당 이후에도 BIS자기자본비율을 1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우수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ATING ACTION – 키움캐피탈의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변경

[표 3] 등급변동요인

상향 변동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성 개선세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5% 이하 지속되고</li> <li>✓ 자본적정성 우수한 수준 유지</li> </ul>
---------	--

주) 상기 등급변동요인은 장기신용등급 기준임

구분 (개별/별도 기준)	3년 평균	연도별			
	2023~2025	2023	2024	2025	26.03
ROA(%)	0.7	0.5	0.3	1.3	2.6
고정이하여신비율(%)	8.6	7.6	9.9	8.4	8.6
BIS자기자본비율		12.3	13.1	16.4	16.7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가를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